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4.3.26.(화) 조간	배포	2024.3.25.(월)		
담당 부서	조사1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승우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장정훈	(02-3145-5582)
	조사2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장창호	(02-3145-5650)
		담당자	팀 장	이장준	(02-3145-5653)
	조사3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임형조	(02-3145-5100)
		담당자	팀 장	장경필	(02-3145-5106)
	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	책임자	실 장	조치형	(02-3145-8420)
		담당자	팀 장	김준호	(02-3145-8422)
	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	책임자	국 장	신규종	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유형주	(02-3145-7702)
	회계감리2국 기획감리팀	책임자	국 장	류태열	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최창중	(02-3145-7292)

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.

□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*,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하였습니다.

* (사례) 무자본 M&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

□ 이는 소위 '좀비기업'이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,

○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

□ 금융감독원은 조사, 공시,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하여

○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.

-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(전체 상장기업의 0.6%)*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,
 - * '21년 19개사, '22년 16개사, '23년 9개사(코넥스·부실기업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진 상폐 등 제외)
- 한편, '23년중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前 2년간 주로 CB·BW 발행 등을 통해 총 3,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였습니다. (유상증자 1,170억원, CB·BW 2,067억원)
- 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여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여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하였습니다. (22개사는 조사중)
-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,694억원이었고,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, 시세조종이 1건, 미공개·보고의무 위반이 7건입니다.

상장폐지 기업의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

- ◆ **[시세조종 사례]** A사 실질사주인 ○○○은 A사 주식의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,
 -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인 ▲▲▲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▲▲▲는 지인 등 12명 명의 계좌를 동원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
 - A사는 이후 CB·BW 발행 등을 통해 73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으나,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불과 10개월만에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결국 상장폐지되었음(증선위 의결로 고발)
- ◆ **[부정거래 및 미공개 사례]** B사의 최대주주 △△△은 코로나19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(부당이득 52억원)하는 한편,
 - 결국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자,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(105억원)을 편취하였음(증선위원장 긴급조치로 검찰 이첩)

-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,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하여 조사중입니다.

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공정거래 사례

◆ 가장납입성 유상증자,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폐요건을 회피한 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·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 편취

① [가장납입성 유상증자 사례] 무자본 M&A 세력 ■■■은 인수대상 C사가 대규모 손실* (자기자본의 50% 이상 세전손실)로 상폐위험에 처하자,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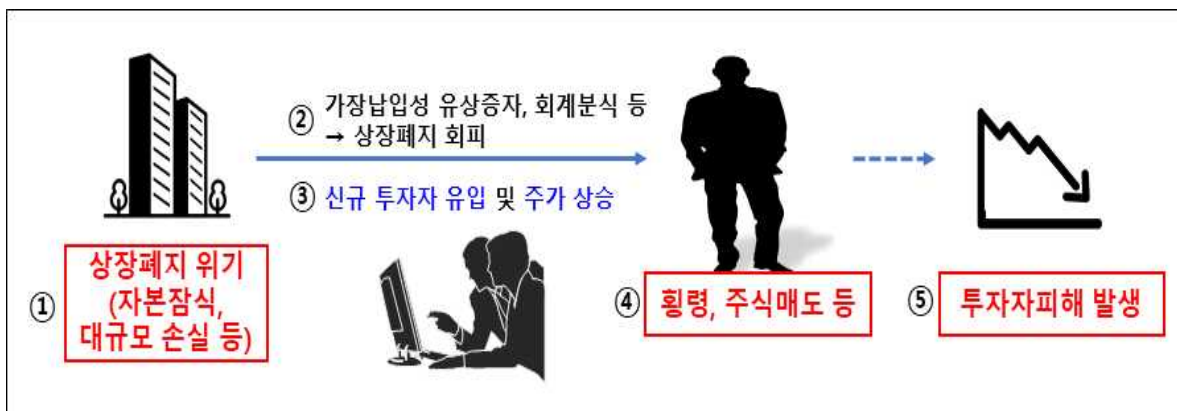
* 대규모 손실(최근 3개년 중 2개년)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(코스닥 기준)

-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

② [회계분식 사례]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D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한 후 D사 최대주주 □□□은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였고,

- D사는 동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 대의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

불공정거래 과정(예시)



- 이러한 불법행위는 ‘좀비기업’의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內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,
-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.

3

대응 방안

◆ **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.**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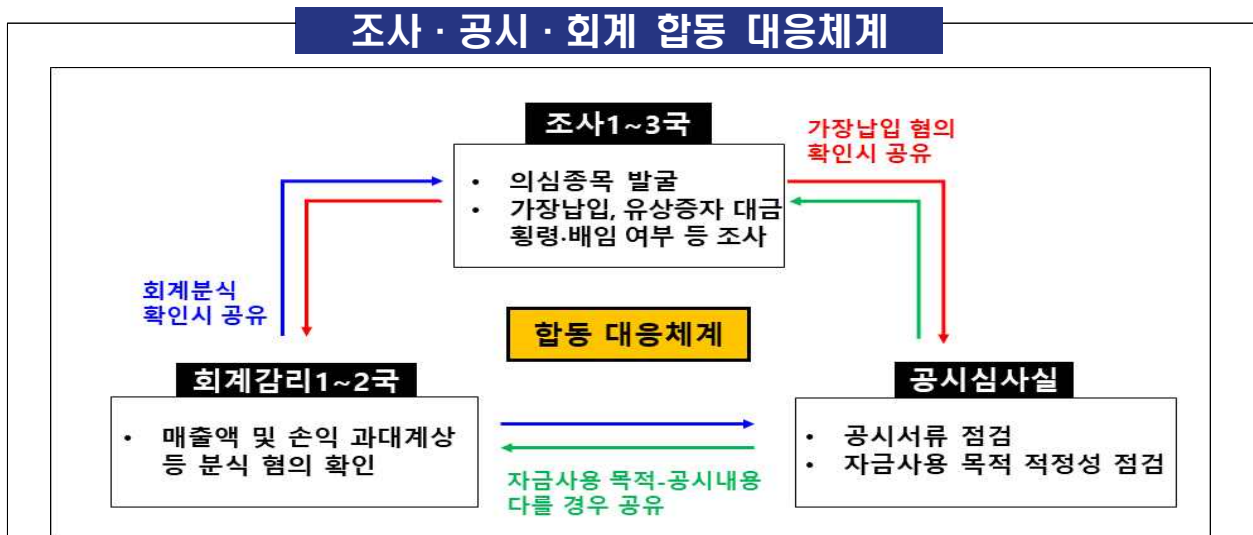
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 집중

-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하여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.
-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·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,
-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※ 유사사례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 예정
- 추가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.
-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,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겠습니다.
- ※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.

2 | 유관부서 합동 대응체계 운영

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.

- 조사1~3국, 공시심사실, 회계감리1~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조사, 공시,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.



< 예 시 >

- ◆ **[조사국]** 자금추적 결과 가장납입 혐의 확인시 회계감리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 분식회계 감리 등에 활용
- ◆ **[공시심사실]** 공시서류(사업보고서, 주요사항보고서)를 통해 증자대금 사용 내역 등을 점검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조사 부서 등과 공유
- ◆ **[회계감리국]** 회계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분식혐의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을 조사 부서 등과 공유

※ 회계분식 관련 사건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 병행 실시

※ 증권불공정거래 제보방법(금융감독원)

- 인터넷 :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② 민원 · 신고 → ③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④ 증권불공정거래 신고
- 우 편 :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(우편번호 07321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